

#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 [7] 지역 애착과 관계적 돌봄이 청년을 지역으로 부른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 2025 시리즈기획

####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 [1] 풀뿌리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 [2] '에코 투어리즘'이다
- [3] 선진국은 사회혁신을 이룬 농업국이다
- [4] 가벼운 만남에서 공동체가 시작된다
- [5] 마을공동체의 미래는 돌봄 민주주의다 1
- [6] 마을공동체의 미래는 돌봄 민주주의다 2
- [7] 지역 애착과 관계적 돌봄이 청년을 지역으로 부른다!
- [8]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살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찾아
- [9] 마을교육 공동체가 거버넌스의 리빙랩이다
- [10] 풀뿌리주민에서 세계시민으로: 한국과 동아시아가 마주한 과제

이번 호에서는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 귀촌, 귀향인의 다양한 실험을 주목하고자 한다. 주목할 만한 사례는 역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애착으로 시작하여 풀뿌리 세계시민의 정체성을 견지하며 끊임 없는 도전적 실험을 전개하는 리더이다. 특히 지역소멸의 위협 속에서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으로 이어지는 돌봄과 지원사업을 창의적으로 전개하는 사례를 주목하고자 한다. 춘천시 사북면에 있는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sup>神山</sup>서 새롭게 시작한 마루고토 칼리지 Kamiyam Marugoto College가 그 사례이다.

단순한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의 청년을 지역으로 부르는 것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으며 많은 사업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는 과정부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아동-청소년-청년 사업의 연계성을 고민할 때이다. “마을의 청소년이 지역의 청년으로” 연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학업과 직장을 위해 지역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지역 애착의 소중한 경험이 청년의 때에 다시 지역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는 기회의 장소임을 발견하고 청년 이주를 감행할 수 있는 안정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에 기초한 지역공동체가 아니라 지역 애착심을 갖고 이주하는 청년 누구에게나 수평적 관계에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가벼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주 청년들이 초기에 지역에서 비빌만한 언덕과 같은 장소가 중요하다. 또한 그들을 원주민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가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지역 리더인 풀뿌리 세계시민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춘천 별빛사회적협동조합과 가미야마 마루고토 칼리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별빛사회적협동조합의 풀뿌리 세계시민,  
해치 윤요왕 이사장**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의 거리는 승용차로 서울과는 불과 두 시간이 채 되지 않지만,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은 이곳에 닿지 않는다. 대신 산과 들이 펼쳐지고 하늘은 한없이 높다. 인구 1000명 남짓한 이 작은 마을에 요즘 도시 청년들과 다양한 실험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산골유학, 청년 레지던스, 마을호텔, 그리고 이제는 청년 제빵소까지 새로운 실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히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함께 산다’는 말이 구체적 관계의 형태로, 돌봄의 윤리로, 가벼운 공동체의 실험 공간으로 되살아나는 과정이다. 그 중심에는 윤요왕 이사장(이하 해치)이 있다. 그는 강원대학교 무역학과를 다녔지만 강의실보다는 거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톨릭학생회 활동을 하던 윤 이사장은 우연히 참여한 ‘농활(농촌 봉사활동)’을 계기로 지역과 사람을 만났다. 그는 “농촌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며 배움의 장소”라고 회상한다. 복학 후에도 계속해서 농활에 참여했고 자연스럽게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과의 인연이 이어졌다.

대학 졸업 후 명동성당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가로 일한 그는, 도시의 중심에서 사회문제를 접하며 활동하던 시절보다도 농촌에서 마주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오히려 더 진하고 깊게 남았다고 말한다. “도움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다”는 그는 원주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로서의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한 계기로 선배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춘천시 사북면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느새 15년을 훌쩍 넘겼다.

해치는 마을에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마주하면서 과거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마을 주민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마을 이장, 아동 돌봄,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별빛 산골 유학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은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마을과 도시, 청소년과 청년, 원주민과 이주민을 잇는 다양한 연결의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왜 실패하는가?**

돌봄을 ‘정책’이 아니라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필자의 질문에 해치는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중앙에서 기획한 대로 지역에서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근본 원인을 지역 공무원의 수동성과 형식주의에서 찾는다. 주민 주도의 돌봄은커녕, 여전히 복지관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면서 마을의 삶은 파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춘천 별빛사회적협동조합 윤요왕 이사장과 함께  
(오른쪽은 필자 공석기 교수)

공무원들은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창의성도 책임감도 없다는 것이 지역 활동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실례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하나로 텃밭 농사용 호미 하나를 사는데도 ‘사업 항목에 안 맞는다’며 승인하지 않는다. 해치는 헌법 위에 ‘주무관법’이 있을 정도로 주무관이 편의대로 유권 해석을 내릴 때마다 좌절과 안타까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토로한다.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을 진행하고자 요즘 유행하는 스터디 카페처럼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책장과 책상을 구매하려 했더니 담당 주무관은 책장은 실내장식 설비에 포함되기에 지원항목이 안 된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낡은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이 시혜성 복지정책의 맹점이다. 좀 더 책임 있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위에서 아동 돌봄과 지역공동체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큰 장애물이 존재하는 데 바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형님 정치가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해치는 소위 ‘형님 정치’와 타협하지 않고 정공법

을 견지한 풀뿌리 세계시민이다.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센터장 시절,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뚫뚫 뭉친 지역 토건세력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시달렸다. 시장이 바뀌자마자 그 압박이 더욱 거세져 몸과 마음이 지쳐 결국 자진해서 사퇴했다. 결국 마을자치지원센터도 2024년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익집단 간의 로비 경쟁이 난무하는 형님 정치에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자 그는 미련 없이 떠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물론 어떤 마을이든지 보이지 않는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선 구현을 위해 개인 및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타협하는 과정으로서의 정치이지 자신의 이권을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형님 정치로 전락할 때 그것은 풀뿌리 지역 회복력과 가벼운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 관계를 회복하는 별빛사회적협동조합의 ‘산골유학센터’와 ‘청청캠프’

마을 현장으로 돌아온 해치는 그동안 고민하던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풀뿌리 세계시민의 길을 선택한 해치는 마을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한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제도권 정치에 남아 시의원



고탄리 마을 모습

도 하고 계속해서 정치의 영역에 남으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해치는 역할이 달라졌을 뿐 자신의 관심은 지역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그들과 지역공동체를 함께 가꾸어 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

요즘 그는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빵 공장을 구상 중이다. 산골유학 프로그램을 15년간 운영하면서 구축해 온 네트워크가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산골학교를 거쳐 간 24세의 한 청년이 얼마 전에 별빛을 다시 찾았다. 해치 가족과 함께 3년을 지낸 어린 학생이 이제 청년이 되어 야간대학과 정비기능사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어린 후배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한 보따리 선물로 내밀자 그들의 환호 소리와 환대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는 전한다. 요즘 그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던 환대이고 친밀감이다. 반사회적<sup>anti-social</sup> 시대를 홀로 살아가는 이 청년이 이 힘든 경쟁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던 것은 별빛센터에 보낸 3년의 시간 동안 소중한 공동체 삶과 친밀한 관계 맺기에서 비롯된다.

별빛센터를 거쳐 간 아이들은 소위 접촉능력<sup>hapticality</sup>이 100%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없이도 아이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놀 수 있고 공간과 자유를 만끽한다. 별빛아동센터에서의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센터 아이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8개의 가정으로 나누어 홈스테이를 한다.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세대를 뛰어넘어 친근하게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에게 소중한 돌봄 친구가 되는 것이다.

물론 도시에서 살던 아이들이 낯선 집에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시골 특유의 냄새도 있고 물과 전기를 맘대로 쓰지 못해 불편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소통하는 것도 어색할 것이다. 그런 아이들이 어느새 어른신을 돕고 그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다.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쉽게 말도 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산골유학을 통해 마을에서 어른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도심 청소년과는 사뭇 다르다. 도시 아이들이 이웃 어른에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인사도 하지 못하고 슬쩍 도망가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도시 아이들은 이런 접촉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몸과 머리만 커지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남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만의 세상인 스마트폰이라는 감옥으로 빠져든다. 조만간에 시가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이 비대면이 익숙한 삶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모든 세대가 이제는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 맺기를 귀찮아하고 의도적으로 피한다. 만나지도 않으니 대화도 어렵고 타자를 이해하고 설득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별빛 산골유학센터의 아이들 모습

필자들은 AI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공감 능력에 기초한 인격적 만남과 관계 맺기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인격적 관계 맺기를 완벽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별빛사회적협동조합 아이들은 어찌 보면 이런 위험과 도전을 미리 준비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접촉 능력 *hapticality* 과 관계 맺기 *relationship* 능력을 완벽히 갖춘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자긍심 위에서 별빛산골유학센터 소속 43명 아이는 폐교 위기의 송화초등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다. 요컨대, 별빛이 아이들에게 선물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는 관계의 기억'이다.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지나 곧 청년이 될 것이다. 별빛사회적협동조합은 청년 돌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였고 그 결과 '청청캠프'를 기획하게 되었다. 청년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세대와 교류하며 지역과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요즘 청년들, 친구도 선배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누가 따뜻하게 밥 한 끼 사주고 아무 조건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험이 그들에게는 너무 귀하죠."

해치 윤 이사장은 이런 이유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청청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청청캠프는 일자리나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나밥길(나와 밥을 먹어주는 길)'처럼 단순한 식사교제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 핵심이다. 청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마을 청소년에서 지역 청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마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 바로 '별의별 이주땡땡'이다. 이 프로젝트는 필자의 '가벼운 공동체' 실험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청년들이 이 마을에 드나드는 것이 너무 무겁지 않게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주민과 이주민 청년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여러

층위의 접촉 지점을 기획하고 있다. 윤요왕 이사장은 "청년들이 떠나는 마을에서 청년들이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별빛은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동 작업장, 로컬창작소 등을 운영하며 청년 예술가들의 거점이자 협업 공간으로 마을을 확장하고 있다. 실제 이곳을 찾은 청년들이 장기 체류하며 공동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일부는 아예 마을에 정착해 새로운 주민이 되었다. 예컨대 마을호텔 형태의 숙소, 레지던스 프로그램, 봉사활동과 홈스테이 등이다. 모두 자발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들이다. 별빛사회적협동조합은 최근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몇 단체들-도시쥐정거장, 자유스쿨레, 농사펀드 등-과 협력해 마을 중심 게스트 하우스를 리노베이션 중이다. 청년 대상 레지던스를 월 50만 원 수준으로 1년 동안 자율적 실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층 식당은 산골 유학센터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일부 여유 공간은 강릉의 유명한 교동 빵 공장의 레서피 기술과 빵 굽는 기계를 기부받아 '청년 제빵소'도 준비 중이다.

이런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공간이 이주 살이를 하는 청년들에게 은근슬쩍 말을 걸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 참여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이다. 이런 느슨한 결합과 열린 참여기회는 이주 살이 청년에게 지역에 관한 관심에서 애착으로 발전시키



방과후 음악교실 모습

고 궁극적으로 지역을 가꾸고 보살필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세계시민이 지역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해치 유 이사장의 창의성과 혁신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지역 애착에 기초한 지역 구성원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가능한 것이지 결코 위로부터 기획된 위탁사업 수행이 아니다. 정부는 보조적인 지원자 역할에 머물 때 진정한 거버넌스가 구현된다.

별빛은 지역 청소년의 선결제 돌봄 카페, 청년 레지던스, 사회적 제빵소 사업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수평적 거버넌스 모델을 꿈꾸고 있다. 이 모든 실험은 느슨하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의 간섭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실천에 무게를 둔다. 로컬에서 청년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단지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은 부족하다. 그들의 활동이 의미 있고 연결되며 존중받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진정한 거버넌스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이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사업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치 유 이사장은 지금도 “제2의 고향” 사북면 고탄리에서 마을과 청년,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상상과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관계 맺기’라는 인간적인 방식에서 청년을 지역으로 부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지역 애착의 풀뿌리 세계시민, 준야 사노 교수

가미야마 마루고토 컬리지 (Kamiyama Marugoto College of Design,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이하 KMC)는 일본 도쿠시마현의 인구 5천의 소도시 가미야마에서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실험이다. 도쿠시마 가미야마는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진 곳이다. 초고령화, 지역소멸,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같은 일본 사회의 구조적 위기에 가벼운 공동체 전략에 기초하여 아래로부터 창의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KMC는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청년 교육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물론 KMC 학생이 가미야마 혹은 다른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일군으로 양성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당장은 지역을 떠날지라도 마을 전체가 캠퍼스로 활용된 가미야마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간직할 것이다. 이후 가미야마에 대한 기억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미래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한 촉매제 혹은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필자의 일본 연구 파트너인 도시샤대학교의 지역공동체와 사회혁신 연구팀의 일원인 준야 사노<sup>佐野 淳也</sup> 교수의 이력은 매우 흥미롭다. 도쿠시마가 고향인 그는 KMC의 비전에 공감해 3년 전에 오사카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미야마로 귀촌하여 KMC 설립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교수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첫해는 가미야마 마을 협동조합 주택에서 거주하며 주민은 물론 학생들과 일상을 나누면서 가미야마를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1시간 거리의 도쿠시마시<sup>徳島市</sup>로 출퇴근하는 아내를 배려하여 이주하였고 도쿠시마 대학에서 강의와 MKC 강사 일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왜 KMC에 집중하였을까? 연구자나 교수로서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지역에 관심을 가진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능동적 자세로 창업을 통해 지역혁신을 꾀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사노 교수는 앞으로 10~20년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기에 자신의 고향인 도쿠시마현 더 좁혀서는 가미야마 지역에 집중하고자 한다. 마을의 아동이 청소년을 거쳐

청년으로 성장하여 전지구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늘 지역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며 기회가 되면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는 선순환 과정을 보고 싶은 것이다.

지난 4월 초 개강 준비로 바쁜 그와 KMC의 설립, 교육 철학, 리더십, 재정 및 운영구조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질문하면서 과연 KMC가 풀뿌리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그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나누었다. 도쿠시마현 출신으로 KMC와 도쿠시마현의 교육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것을 교육자이자 풀뿌리 세계시민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실험의 지속, 도쿠시마현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 교육 모델 개발, 그리고 지역소멸을 넘어서는 지렛대로서 KMC가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가미야마 마루고토 대학의 실험적 도전

KMC는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sup>神山町</sup>에 위치한 민간 주도의 사립 고등전문학교<sup>高専, KOSEN</sup>이다. 일본 고센은 중학교 졸업 후 5년제로 운영되는 기술자 양성 교육 기관으로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과정을 통합한 형태로서 15세부터 입학할 수 있다. 고센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며 졸업 후 취업 또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57개의 다양한 고센이 설립 운영되고 있지만 대다수가 국공립이다. 고센 중 20년 전에 세워진 오키나와 고센이 국공립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설립된 것이다. KMC는 가장 최근에 설립된 사립 고센이다. KMC는 4개의 사립기관 중의 하나로 민간 주도로 설립되어 자율성을 갖고 구체적 비전에 맞추어 교육이 구현되고 있다.

KMC는 2023년 4월 2일 문을 열었다. 총 40명의 학생이

학 학년을 구성한다. 35명의 교직원이 근무하며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KMC는 기술, 디자인, 창업 세 분야를 융합한 교육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안 교육을 실천하며, 풀뿌리 세계시민을 자라날 수 있는 실험 모델로 주목된다.

KMC의 교육 철학은 “기술과 디자인, 창의력으로 지역과 세계를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위에 ‘창업가정신<sup>entrepreneurship</sup>’을 모든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임을 강조한다. KMC의 모든 학생이 기업가가 되는 것이 결코 교육의 목표는 아니다. 대신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하는 시민<sup>entrepreneurial citizen</sup>’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특히 KMC는 교육 철학과 비전 나눔을 위해 6개월마다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2박3일 집중 워크숍을 갖는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진은 학교 비전과 교육 커리큘럼을 재정비하며 ‘창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창의적 기획자, 실천가를 위한 교육’이라는 비전을 교직원과 나눈다.

2023년에 개교한 KMC는 2028년까지 학생을 매년 40명씩 선발하고 2029년 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다. 과연 5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어떤 졸업생이 배출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학교의 비전과 성격을 규정할 핵심 사례가 될 것이다.

KMC는 20년 안에 졸업생들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 글로벌 현장에서 혁신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물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100% 자신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정체성 구축 그리고 교육 철학 내면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KMC는 매년 40명의 소규모 학생을 선정하고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업료 수입의 한계 그리고 장기적 후원자 확보가 큰 과제로 다가온다. 다음으로 정체

성 구축의 도전과제가 있다. 학생들은 우선 기술<sup>Technology</sup> 측면에서 프로그래밍, AI, IoT, 디지털 제작 등을 배운다. 다음으로 디자인 전공은 UX/UI, 공간 디자인, 건축, 그래픽 등을 배운다. 특이한 것은 학생들에게 창업가정신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사회문제 해결, 협업 능력, 지역과 연결된 창의적 활동 사례를 수업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체득한다. 예를 들어 사노 교수가 담당하는 '마을<sup>Neighborhood</sup>' 과목은 지역 연계와 주민과의 관계 맺기를 목표로 학생들이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사노 교수는 KMC가 아직도 '어떤 학교가 될 것인가'를 탐색 중임을 강조한다. 교직원은 이를 지속적으로 탐색 중이다. 학생들 역시 KMC의 교육 철학을 내면화하고 특히 '창업가정신'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성실히 커리큘럼에 따라가고 있다. 사실 KMC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2029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과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KMC 졸업생이 지역과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을 교직원이 정기적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



KMC 외부 모습. 사진=준야 사노 교수

다.

KMC는 단순한 대안학교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한 실천적 교육 플랫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시민성 개념을 기반으로 지역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는 동시에 글로벌 감수성을 함께 갖추는 과정이다. 이것은 일방적 교육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구체적 장소를 중심으로 이웃 주민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조금씩 형성되는 것이다.

필자는 KMC의 창의적 교육 실험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미래 대안의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교육을 통해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KMC 모델은 한국의 대안 교육 및 지역대학 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재정 운영의 다양화, 주민 참여 기반의 학교 설립 과정, 교직원 중심의 지속적 비전 정립은 한국형 모델 구상에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KMC의 지역과 기업과의 관계 맺기

KMC는 일본 농산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 청년 이탈, 교육 기회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매우 실험적인 대안 교육이다. 이 학교는 단순한 창업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공동체와의 깊은 연계와 공동학습, 글로벌-로컬의 접속, 다양한 주체 간 협치를 실현하고 있다. KMC는 단순히 정부나 민간 기업의 일방적 계획이 아니라, 각 지역 주민의 동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다.

가미야마는 과거 다섯 개의 마을이 통합된 행정구역으로 내부에는 여전히 각 마을의 정체성이 존재한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지역 주

민들의 우려도 있었다. 특히 외부 청년 유입에 따른 소음 문제, 편의시설 부족,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이 주요한 걱정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진은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열고, Q&A를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였다. 주민들이 실제로 학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픈 캠퍼스 주간’을 운영하여 전 세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전 협의와 신뢰 구축이 현재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되었다.

예를 들어 KMC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연결 고리를 형성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장려한다. 학생들은 매년 지역 주민들에게 학습 결과와 커뮤니티 공헌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재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가미야마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돌봄care’의 실천으로 지역 노인, 환경, 관계의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과정이자 시민성 교육의 핵심축으로 작용한다.

그럼 KMC의 운영 및 재정 측면을 살펴보자. KMC는 약 30명의 교직원이 다양한 팀(입학, 교육, 홍보, 행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약 20명이 교수진이다. 각

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수평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주 1회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와 각 팀별 회의를 통해 수평적이고 공유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최종 의사결정은 산산Sansan Inc.의 대표인 테라다 Terada 회장이 의장을 맡은 이사회Board에서 이루어진다. 이사회에는 지역 인사뿐 아니라 도쿄 등 외부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 운영은 교장, 부교장, 행정 책임자 등 5~6명의 이사director들이 주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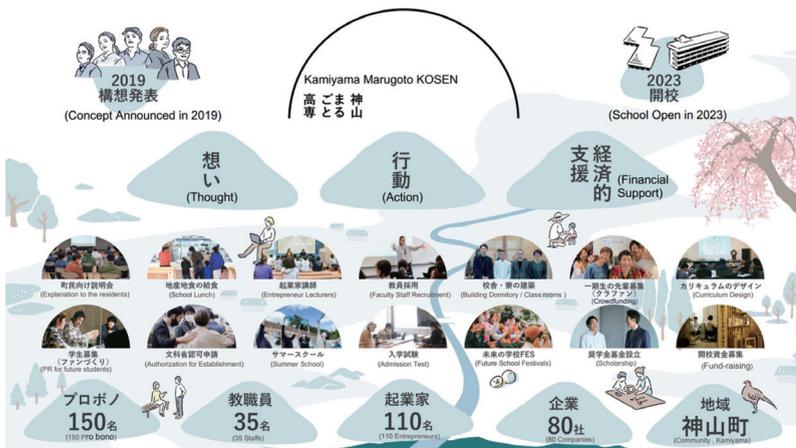
현재 KMC는 신생 고등전문학교로서 아직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주요 수입원은 학생 등록금(연 200만 엔)이며 이 비용은 지역 기업 후원 장학금으로 대부분 충당된다. 장학금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이 면제된다.

최근 KMC를 보고 배우려는 방문객 증가로 인해 견학 프로그램에 소정의 참가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인의 고액 기부(1억 엔 수준)도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11개 기업이 총 10억 엔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기부금은 재단을 통해 관리되며 학교 운영과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에 활용된다.

이와 같은 재정 다변화 전략은 한국의 대안학교들이 겪는 교직원의 펀드레이징 부담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하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고유의 고향세 제도를 활용하

여 KMC 초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KMC는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역을 거점으로 하면서도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이란 비전에 공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IT 기업 ‘산산Sansan Inc.’의 창업자 테라다 치쿠시Terada Chikushi의 주도로 민간 자본 주도의 지역 활성화



KMC 협력 파트너. 출처=준야 사노 교수

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KMC가 2023년 정식 개교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테라다 이사장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많은 기업들이 장학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요컨대 가미야마 마루고토 컬리지(KMC)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동시에 세계와 연결되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이 학교는 기술, 디자인,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한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다. 특히 이곳에서 강조하는 '기업가정신'은 단순한 창업 역량이나 경제적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공공적 기여, 그리고 공동체와의 상호 돌봄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교육 주체가 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주민, 행정, 전문가, 교직원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배움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학문과 실천, 이론과 생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직면한 지방 소멸, 청년 유출, 사회적 고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자, 지역에서 미래를 다시 상상하고 실험하는 장이 되고 있다.

아직 개교 3년 차에 불과하지만 KMC가 보여주는 시도

는 동아시아 전역의 교육 혁신, 지역 재생, 시민성 회복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지금, 여기'에서 뿌리 내린,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 기반의 교육 실천은 대안적 미래를 만들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 사례는 지식의 전달을 넘어 지역과 세계의 복합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할 수 있는 '풀뿌리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다. **2023년 12월 14일**

사진=공석기 제공



사노 교수(왼쪽)와 KMC 학생



KMC 학생과 함께 한 필자



KMC 장학재단 설립을 지원한 기부 기업들